중국 大지진 참사

언색湖 붕괴…주민 수만명 긴급대피

지진이 만든 자연호수…'2차 재앙' 비상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지진으로 산이 붕괴되면서 형성된 거대한 자연호수인 '언색호'가 18일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주민 수만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2차 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토자원부와 쓰촨성 수리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광위안(廣元)시 칭촨(靑川)현에 만들어진 최대의 언색호가 18일 새벽 5시(현지시각)께부터 자연 붕괴를 시작하면서 물줄기가 터져나가 하류지역 주민 3만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언색호는 둑 높이만 무려 40~50m에 달하며 평균 수위가 15~18m 정도고 상류 지역까지의 길이가 5~7㎞에 이르며, 저장하고 있는 물의 양이 500만~700만㎥ 정도인 초대형 자연호수다. 전문가들은 이 언색호의 수위가 3m만 더 올라가면 하류지역 40㎞까지 5m 높이의 물길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하류지역에 사는 칭촨현 주민 등 3만명의 목숨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쓰촨성 수리청은 칭촨현과 베이촨현 등에 새로 만들어진 언색호마다 2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상주시킨 채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받아 정밀검사를 실시하면서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쓰촨성 지질광산국은 긴급회의를 열고 쓰촨성 일대 언색호들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대부분 붕괴하면서 하류지역을 매몰할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언색호 상류의 물을 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베이촨현 차핑 마을의 저수지 댐이 17일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붕괴 조짐을 보이자 수천명의 주민들이 중상자 46명을 버린 채 고지대로 대피했다.

중국 관계당국은 지난 17일, 지진으로 만들어진 언색호가 베이촨현에 8개, 칭촨현 5개, 스팡 등 쓰촨성 일대에 18개에 달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언색호**=지진이나 화산 용암 분출 등으로 산이 무너지면서 생긴 흙과 돌 등이 강의 흐름을 막아 형성되는 자연호수. 조그만 충격이나 환경변화에도 손쉽게 무너져 내릴 우려가 높은 불안정한 호수여서 홍수 등 2차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119 구조대 18일 중국 쓰촨성 스팡시 잉화 마을의 한 화학비료 공장에서 한국의 중앙 119 구조대원들이 쓰촨 대지진으로 매몰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119 구조대는 이날 오전까지 시신 5구를 수습했으며 일주일간 피해현장에 머물며 구조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쓰촨성서 또 규모 6.1 여진 발생

지진 발생 120시간만에 63명 구조

대지진이 강타한 중국 쓰촨성에서 활발한 구조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대가 17일 최소한 63명의 목숨을 건졌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쓰촨성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 구조작업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구조대가 이날 진앙인 원촨현 잉슈진에서 지진 발생 120시간 만에 주민 57명을 구한 데 이어 베이촨현과 선팡시, 두장옌 등에서도 6명을 구조했다.

두장옌 구조 현장에서는 외국 구조대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 구조대가 이날 오후 9시16분(현지시각) 건물 잔해에 깔려있던 신원미상의 61세 여성을 127시간 만에 구조하는 개가를 올렸고, 오후 11시6분께 건물 잔해에 매몰됐던 장샤오핑(46)이 지진 발생 129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중국 정부는 이번 대지진으로 인해 최소한 5만명이 사망하고 500만명 가량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 17일 쓰촨성에 다시 리히터 규모 6.1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USGS는 이날 지진이 광안에서 서쪽으로 80㎞ 떨어진 곳의 지하 80㎞에서 발생했으며, 지난 12일 규모 7.9의 강진 이후 가장 최근 발생한 여진이라고 전했다.

이날 여진으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 국가지진국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까지 리히터 규모 4 이상의 여진이 지난 12일 이후 모두 145차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사이클론 희생자 13만명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로 인해 모두 13만3천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미얀마 국영TV는 지난 16일 현재 7만7천738명이 숨지고 5만5천917명이 실종돼 나르기스 희생자 수가 모두 13만3천655명으로 불어났으며, 부상자 수는 1만9천359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국영TV는 사망·실종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재난지역이 광범위한데다 악천후로 인해 그동안 제대로 인명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엔은 나르기스 희생자 수가 총 10만명 이상, 국제적십자연맹과 적신월사는 최고 12만7천99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었다.

유엔과 적십자는 또 식량과 식수, 거처 등이 필요한 이재민 수가 160~250만명에 이르며 이중 27만명만이 구호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연합뉴스

"내달초 북핵 6자회담 재개"

한·미·일 수석대표 18~19일 워싱턴 회동
北 핵신고 검증 방법·핵폐기 계획 등 논의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3자 수석대표회동을 위해 18일 오전 미국으로 떠났다.

김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18~19일(현지시각) 미·일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사이키 아키다카 아주국장과 각각 양자회동 및 3자회동을 갖고 6자회담 재개 일정을 비롯한 북핵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핵신고 문제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방법, 6자회담 재개 일정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 틀내에서 한·미·일 3자 협의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협의에서는 차기 6자회담에서 논의될 현안인 신고내용 검증은 물론 핵폐기 단계 이행을 위한 이행 계획 등을 두루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6자회담 재개 일정 등 구체적인 것은 현지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동에서 가장 비중있게 논의될 부분은 북한이 신고한 핵프로그램을 어떻게 검증할 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영변 원자로 가동기록 등 자료에 대해 '완전하다'는 잠정 판단을 내려 상세 검토 뒤 별다른 돌발변수가 없는 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들어가고 북한은 이를 전후로 핵신고서를 의장인 중국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북·미 간 상응조치를 이달까지는 마무리한 뒤 가급적 다음달 초에는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아울러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일본측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자 수석대표 회동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인 그해 11월 하노이 회동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日 중등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명기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서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보류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의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초·중·고의 각 교과별로 만들어져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해설서는 또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 3월 초중고교의 신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신 해설서를 6~7월 중 완성할 예정이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 69개 기업중 10여곳 이미 수익

20여곳은 손익분기점 도달

개성공단에 입주한 69개 기업중 10여개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20여개 기업은 손익분기점 근처에 도달했다고 신언상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밝혔다.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신 위원장은 18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남측 민화협)가 발행하는 격월간지 '민족화해' 5~6월호에서, 손익분기점 미도달 기업이 30여개지만 "신규가동, 신규투자, 감가상각비 처리, 국내 본사와 임가공료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수익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도달기업이라 해서 적자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100만평 공사가 이미 마무리됐는데도 혹시 추가분양이 없는지, 분양받은 기업중 매각의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중소기업들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중남미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사업주들의 문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신 위원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놀라운 잠재력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개선속도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치지만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곧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위원장은 지난 3월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통일부 직원들이 북측의 요구로 철수한 것에 대해 "경협협의사무소는 개성공단 안에 있지만 실제론 개성공단 운영과 직접 관련없는 남북 당국간 협의채널"이라며 개성공단 업무와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양희